

생활시간자료를 통해 본 중년의 일상유형: 중년의 일, 가족, 여가시간과 시간압박

차승은
(한양대학교)

I. 문제제기

지난 30여 년간 진행된 인구 및 사회적인 변화로 인하여 거시지표 상에서 드러나는 현재 중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채롭다. 결혼시기 지연 및 연기, 점진적으로 진행된 가족의 해체 등의 이유로 인하여 중년에 홀로 살아가는 개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가족체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경우에도 삶의 형태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감지된다. 전체 가구에서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구성을 갖는 비율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통계청, 2006), 그 공백을 단독가구, 부부가구 그리고 기러기 가족으로 대표되는 분거형 가족들이 채우고 있다. 직업영역도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높은 실업률, 잦은 직업이동, 이른 퇴직과 같은 직업영역에서의 변화들은 개개인들이 겪게 되는 직업경험의 차이를 더욱 벌려 놓았다. 그런가 하면, 여성의 일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되면서, 직업경력도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생애유형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일과 가족영역의 변화의 가장 중심에 중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때문에 중년들이 겪고 있을 일상의 모습을 살펴본다는 것은, 역동적인 변화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혹은 생애의 다양한 궤적을 추적한다는 의미에서 등등 여러 측면에서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진행되어온 중년기 연구(이형실, 2000; 신기영·옥선화, 2000; 한경혜, 1996, 2001; 한경혜·송지은, 2001; 한경혜·이정화·Ryff·Marks·옥선화·차승은, 2003)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중년의 삶을 포착하고자 한 시도였으며, 이는 “중년”이라는 생애단계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을 환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더욱이 중년기 삶의 다양성과 복잡성의 증가는 가까운 미래에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개개인의 삶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서(한경혜 외, 2002) 중년의 삶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여러 한계점들 때문인지 한국사회에서 중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다르고, 개개인의 상이한 일상들이 어떠한 사회적 문법 하에 작동하는가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기존의 중년기 연구들은 연구대상의 제한성, 연구지역의 편포 등의 표집의 한계점으로 인해 중년들의 삶에 대한 이론적 수준의 논리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조사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개

인의 경험에 기반 하여 삶의 다양성을 조명한 일부 질적연구 (한경혜·노영주, 2000)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중년의 삶에 대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이해의 수준은 아직까지 대중매체나 신문지상에서 구성된 이야기나 메시지의 단편적인 조합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생활시간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중년의 삶을 조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질적 자료들 혹은 소규모 조사연구에서 드러났던 차이와 논의들을 대규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고, 중년들의 일상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이 수집한 「2004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중년층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과 가족 그리고 여가시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직업/가족역할을 둘러싼 경험과 일/가족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겪게 되는 개인의 시간 경험은 어떻게 총화되어 있는지, 만약 시간사용의 방식에서 뚜렷한 몇몇 유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개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이들이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직면하게 될 또 다른 변화에 대한 함의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고찰

1. 중년기 일상생활: 일, 가족 그리고 여가

1) 시간연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 및 추이

시간연구가 최근에 오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 즉, 하루하루를 꾸려가는 개인의 일상과 생활세계에 주목한 학문적 분위기를 지적할 수 있다. 김왕배에 의하면, 생활세계는 개인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을 의미한다. 일상은 반복적이며 단순하고 사소한 일로 채워지는데, 이러한 일상생활은 매일, 매주, 매월, 매년과 같은 주기적인 시공간속에서 비슷비슷한 행위들을 구성하게 된다(김왕배, 1995 오만석 외 재인용). 일상생활에 대한 논의들은 반복되는 일상사가 구조화되고, 사회의 각 계층에 침투하여 공동적으로 존재하는 행위양식이나 경향성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박수미·선보영·김진옥, 2005; 박영도 외, 2005). 시간 사용에 대한 선택에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개인이나 그가 속한 집단의 생활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개인의 행위양식을 구조적인 변수들을 위주로 설명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일상을 스스로 구성해나가는 개인의 경험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과 가족의 상호성에 관심을 연구들이 시간을 중요한 자원(resource)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시간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중역할을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일과 가족영역을 넘나들면서 각 영역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Binachi, Casper & King, 2005). 때문에 한정된 시간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는 개인의 삶의 방식이자 적응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생활세계와 일상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최근 들어 서구에서는 일/가족을 주제로 하거나, 사회학

관련 연구에서 시간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은 시간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업/가족 영역을 공유하는 개인이 각 역할을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를 두는지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음을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사회학, 가정학, 사회복지학을 중심으로 생활시간사용실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고, 1999년부터 통계청이 5년 간격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자료가 출시하면서 관련 연구가 최근들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가 하면, 농촌진흥청에서는 1979년부터 농가 가족원을 중심으로 5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생활시간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이기영 외, 2006).

2) 시간연구에서의 주요쟁점

선행 연구들은 일상생활을 어떠한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개별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양을 통해 분석해 왔다. 시간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증 연구들은 시간을 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그리고 여가시간의 네 가지 전형적인 시간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김정석, 2005). 여기에서 유급노동은 일(work)관련 활동 그리고 무급노동으로 분류되는 활동영역들은 가사노동을 비롯하여 가족돌보기, 재화 및 용역 구입 등이 포함된다. 개인유지¹⁾란, 수면을 비롯하여 소위 우리가 생명유지를 위해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는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가는 이러한 유급, 무급, 그리고 개인유지를 위한 활동을 제외한 시간으로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사고생활, 운동, 공연 및 영화·미술관 관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가활동의 내용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그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의 일상연구의 쟁점의 하나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노동과 여가와와의 관계 그리고 개별 시간 간의 균형의 문제이다(은기수, 2005).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그리고 여가사이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후기산업사회로 올수록 과연 개인의 삶에서 여가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의 논의가 공존하고 있다. 고전적 연구들은 경제적 생산성 증가의 결과로서 노동시간이 감소한다고 보았다. 일터나 가족 모두에서 노동에 할애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특히 베블렌(1906)이나 부르디외는 계층에 한정된 이야기이기는 하나, 노동시간의 감소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계급의 출현을 예고한 바 있다(박영도 외, 2005 재인용).

여가시간의 증가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산업사회 그리고 후기산업사회에 이르면서 노동시간의 증가가 매우 현격하였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는 대표적으로 합리적 선택이론(Becker, 1965)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유급노동이 증가하면서 개인들의 수입 혹은 소득은 높아지고, 그 증가된 수입으로 개인들을 선호하는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역설적으로 개인들은 여가시간을 줄이면서 동시에 만족스러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잉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사회의 특성이라고 진단한 Schor(1992)의 주장도 합리성 선택이론과 매우 유사하다. Schor(1992)에 따르면, 실제로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구매 혹은 구매하게끔 만드는 소비사회의 속성상, 개인들은 자신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여가시간을

1) 개인유지시간 특히 수면시간의 경우는 최근 시간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영역으로서 여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개인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social role)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개인유지활동의 측면은 제외하였다.

줄이고 노동시장을 늘이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들의 논의가 고전적 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은 개인의 삶에서 노동시간에도 특히 일(work) 관련한 활동시간이 대폭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은 감소하였다고 주장한 점이다. 이들은 여가나 개인유지시간은 물론이고 무급노동으로 분류되는 가족관련 활동까지도 유급노동시간에 의해 잠식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여가시간의 축소 뿐 아니라 가사노동, 가족활동을 축소하면서까지 현대인의 일상이 공적영역의 일에 치중하게 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노동중독”²⁾ 현상도 이들의 논의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가시간과 노동시간의 분배가 사회구조적으로 총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가령, 호셜드(Hoschild, 1995)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배분방식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여성과 남성이 유급 혹은 무급노동을 하고, 여가시간을 보내는데 대한 사회적 차별성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중년층의 경우 시간활용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노동시간이 긴 것이 특징이며 그러한 문화에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40대 남성의 높은 사망률이 그들의 긴 노동시간과 음주 및 흡연같은 비합리적인 여가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를 비롯하여 대중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온 부분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주5일제 시행, 여가 및 레저문화 및 관련산업의 급속한 확대는 사람들이 점차 노동보다는 여가를 통해서 더 높은 삶의 질을 지향함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대중매체로부터 시작된 일명 “wellbeing” 문화의 전파는 우리사회에서 여가에 대한 사회적인 포용력과 수용을 보여준다. 이러한 최근의 여가문화 및 활동의 증가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문숙재 등(2005)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한국의 여가경험이 사회계층에 따라 총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소득층의 경우 다양한 여가활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여가활동의 ‘구별짓기’를 시도한 한신갑·박근영(2007)은 한국의 여가문화가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의해 하위문화를 형성할 만큼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계가 아직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여가활동의 내용이 일과 가족의 맥락에서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여가의 의미나 그 활동내용은 성이나 연령, 그리고 사회계층적 특성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 중년층의 일과 가족 그리고 여가의 일상유형의 종류나 분포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또 각각의 일상유형을 구분하는 원리나 사회적 기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일상연구 혹은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는 시간의 소비패턴 및 그 구조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기존연구들이 집합적인 수준에서 파악되는 시간배분의 양상과 그 패턴의 결정요인을 밝히는데 주력하면서, 정작 미시적인 수준에서 유급노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여가시간의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개별 활동과 그 시간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루의 일상은 개

2) 김왕배(2007)에 의하면, 노동중독은 비교적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행위에 의한 중독의 한 범주로서 가족이나 사회관계를 소홀히 하고 개인의 육체적·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할 만큼 일에 대해 몰입해 있는 상황을 말한다. 여가와 소비를 강조하는 후기산업사회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과잉노동과 과로사, 노동에 의한 피로현상 등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여가와 소비를 위한 소득보존과 치열한 경쟁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한 자기계발의 강박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별 시간으로 분리되었고, ‘개별 시간들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 최근에 오면서 근무시간, 가사노동시간 등 개별 활동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김진옥, 2006; 유소아·최윤지, 2002; 박수미·선보영·김진옥, 2005) 등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 역시 시간활용을 개별 활동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활동시간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살펴보고 있어 개인의 시간활용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 연구는 각 활동의 내용과 배분방식이 개인수준에서 조정·통합되어 있음을 고려하고자 한다. 일 관련 활동, 가족 관련활동, 그리고 여가활동이 중년기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시간활용방식을 중심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3) 시간활용과 관련요인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성, 연령, 교육이나 소득수준을 비롯한 계층적 특성, 취업여부, 직종에 따라 개인의 유급노동, 가사노동 혹은 여가시간의 증감이 다르다. 또한, 일·가족 역할에 대한 태도, 여가시간에 대한 인식, 시간에 대한 개인의 정서에 따라 하루 24시간을 조직·구성하는 방식은 상이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성은 일/가족 역할 경험 및 시간경험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성에 따라 일/가족역할의 우선성이 다르다는 역할정체성 관련한 논의들은 일/가족 각각의 경험이나 역할에 대한 평가가 매우 상이할 가능성을 말해준다. 특히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직업역할과 아버지 역할이 경쟁적인 관계에 있을 때, 장시간의 노동, 직장 이후의 술자리모임 등이 점령하는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상경험이 “일 중심적”으로 짜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성과 함께, 연령도 생활시간활용에서의 차이를 초래하는 중요한 설명변수이다. 기존의 생활시간 연구들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개인의 생활시간의 활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김왕배 외, 2004). 이들은 일과 가족 역할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연령이 진행함에 따라 그리고 세대에 따라 다른데 기인한 결과로 설명한다. 연령을 개인, 사회, 역사를 연결시키는 매개요인이라고 가정할 때, 시간배분양식이 중년기 내에서도 다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계층과 생활시간활용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학력일수록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고, 때문에,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직업특성과 맞물려서 유급노동(일)과 관련된 시간에서 차이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그러나 생활시간과 계층의 관련성은 이직까지 명확하지는 않다. 많은 실증연구들은 계층에 따른 시간활용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했다더라도 그 결과에서의 일관성을 찾지 못했다 관련연구들의 이러한 지적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월평균 소득, 그리고 주관적인 경제 상태 그리고 직종을 중심으로 계층적 특성이 중년기 시간배분방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자녀관련 특성도 일/가족 역할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 남녀모두 일보다는 가족역할에 더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어린자녀가 있는 부모와 자녀가 이미 성장하여 자잘한 양육기술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부모역할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중년의 시간배분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정석(2005)에 의하면, 성인자녀로서의 역할 역시 가족관련활동시간이 늘어나

는 원인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어린자녀의 여부, 나이든 부모의 생존여부와 같은 부양부담이 중년의 생활시간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 가운데 아직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연령 (7세 이하 자녀)의 자녀의 여부와 함께 노인 부모의 생존여부를 변수화 하여 유형결정요인에 포함을 시켰다.

인구학적 혹은 사회적, 구조적 특성 뿐 아니라 각 역할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선행연구들은 언급해 왔다. 기존연구들은 이러한 역할태도를 주로 남녀의 취업여부라는 역할점유여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 취업여성이 전업주부보다 가사노동시간을 비롯한 가족관련활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하였다(유소이·최윤지, 2002). 그런데, 또 다른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취업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생애주기에 따라 생활시간의 활용패턴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이기영, 이승미, 1994). 또한 여성취업자에 대한 연구들은 여성이 종사하는 직업 중에는 9시간 근무를 해 내는 직종도 있지만, 시간제 근무, 격일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급노동활동에 종사하는 사례들에 대한 보고가 꾸준히 있었다(박수미, 2006). 이러한 논의들은 동일한 여성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유급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양이나 그 분배방식이 상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유급노동시간 구성의 차이에 따라 가족관련활동이나 여가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의 비율도 달라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업자의 직종, 고용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개인의 일/가족역할에 대한 태도와 시간활용패턴이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령, 남성은 일, 여성은 가족역할을 주로 수행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가진 경우라면 시간활용에서도 여성은 가족관련활동시간을 유급시간보다 더 많이 배분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남성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가족관련활동이나 여가시간보다는 유급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의 양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성역할 태도를 일상유형의 결정요인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취업남녀의 시간활용패턴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동시행동수준(multitasking)도 중요하게 고려하고자 한다. 시간일지연구나 일부 질적 연구에서 드러나는 동시행동의 증가는 시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이들은 현대인들의 시간사용의 효율성에 주목하였는데, 동시행동자체를 일과 가족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을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Binachi와 그 동료들(2006)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성인들은 여가시간에도 자녀를 돌보거나, 자녀와 함께 여가를 즐기는 등 동시행동의 비율이 2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실증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일/가족 역할 부담이 많은 여성이 남성보다 동시행동시간이 길고, 여성 중에서도 취업여성이 전업주부보다도 동시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택근무형태의 증가 역시 동시행동의 비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취업여성 중에서 재택근무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노동과 가사노동, 구매행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중복되어 있다는 점이 시간일지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Hessing, 1994; Bittman & Wajcman, 2000). 이들은 근무시간이나, 여가시간이라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간 이외에도 현대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그러한 활동 역시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분석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과 가족 그리고 여가시간의 분배방식이 수행하는 동시행동의 수준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주행동과 병행해서 행한 행위의 종류와 행위에

소요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시행동 중에서도 일, 가족관련 활동, 여가활동의 시간을 모두 합하여 동시적으로 일어난 총 시간을 구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2. 시간에 대한 정서와 개인의 삶의 질

Bianchi 외(2006), Schneider와 Waite(2005)에 따르면 주어진 시간에 대해 개인이 어떠한 정서를 갖는지(feel about time)도 활동별 시간량을 분석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중역할을 하는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매 순간순간마다 일과 가족영역을 넘나들면서 한정된 시간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에 대한 정서가 중요하게 부각된데 대한 연구자들의 주장은 약간씩 다르다 그리고 이는 상이한 연구쟁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현대인들이 일과 가족영역에서 과도한 역할수행에 시달리고 있고, 쓸 수 있는 여가시간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여가시간(혹은 개인시간)의 감소가 시간부족의 정서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시간차원에서 보게 되면, 맞벌이 가족의 증가, 한 부모 가족의 증가는 남녀 모두에게 일터와 가족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났음을 말해준다(Jacobs & Gerson, 2004). 세계화와 경쟁위주의 경제구조는 시간외 근무의 증가, 주말근무의 확대로 이어졌고, 이 역시 시간부족을 더 많이 호소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동시행동(multitasking), 즉, 한정된 시간에 수행해야만 하는 활동이 증가한 것도 시간부족을 호소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여가시간의 증감과는 무관하게 현대인들은 시간부족정서(time pressure)를 지각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개인의 시간이 개별 활동들로 채워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사회적인 강박관념과 불안증이 만연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바쁘면 성공한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대인들이 시간압박을 마치 유행처럼 지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시간부족을 과시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보았다(Bourdieu, 1984; Gershuny, 2005; Robinson & Godbey, 1999). 일과 가족 여가시간을 보다 압축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문화적인 흐름은 성인들 뿐 아니라 아동의 생활시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쇄작용으로 나타난다. 가령, 성인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아이들과의 여러 가지 문화활동(가령, 박물관 방문, 캠핑, 주말농장)들을 기획·수행하는데, 이러한 아동의 다양한 방과 후 활동들은 성인은 물론 아이들이 즐겨야 할 자유시간(free time)까지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Milkie, Mattingly, Nomaguchi, Bianchi, & Robinson, 2004).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는 시간과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시간이 유리되면서, 시간부족을 호소하는 개인도 급격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개개인이 시간을 관리·활용하는 방식과 시간에 대한 정서가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절대적인 시간의 양과 더불어서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후기산업화사회의 “시간부족” 정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설명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생애 단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달라진다는 Hochschild(1996)의 논의와 연계되면 조금 더 구체화 될 수 있다. 생애 단계 중에서도 특히 중년기에 시간부족의 정서가 현저하다 보았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는 학교생활이 큰 비

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별 차이와 같은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다가 성인기로의 전이시점에서는 일과 가족역할을 병행하면서 개인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가족보다 직업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으면서 시간배분의 원리는 직업역할 수행을 위해 어떻게 가족역할을 조정하고 분배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중년기 특히 중년후기에 들어서면 가족역할은 부모역할을 비롯하여 성인자녀로서의 역할로 그 범주가 더욱 확대되고, 직업영역에서는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는 체계에 들어서면서, 개인은 그야말로 시간압박(time pressure)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최근 연구들은 시간에 대한 정서를 시간연구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삶의 질 문제와도 연관시키고 있다. Rogers와 Amato(2000), Scheiman(1999)의 연구에서는 시간부족에 시달리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취약하였고, 결혼안정성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시간에 대한 정서가 삶의 질을 예측하는 중간변수(proxy variable)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중년층의 시간배분유형화 작업을 통해 시간활용과 시간에 대한 정서 연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어떠한 유형이 시간부족을 많이 지각하고, 높은 피로도를 호소하는지, 그것은 기존의 시간정서의 쟁점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더 나아가서 중년기의 이러한 시간에 대한 정서는 과연 그들의 노년기 삶에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시간에 대한 정서는 시간압박수준(time pressure)과 피로도(fatigue)를 통해 살펴보았다.

Ⅲ. 자료 및 연구방법

1. 자료의 특성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04년도 일상생활시간조사(통계청)”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6만 여명의 대상자 중에서 만 35세-59세에 해당하면서, 조사시점에 배우자가 있고,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남녀 17,684명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1) 유형화를 위한 세 가지 축

유형화 작업을 위해 유형을 구분할 축으로 세 가지 시간 분류 축, 유급노동, 가족관련활동, 여가시간을 설정하였다. 세 가지 시간에 대한 정보는 10분 간격으로 기재된 시간일지를 합산하여 하루 평균 몇 분인가로 측정하였다.

유급노동시간: 유급노동에는 고용된 일과 자영업에 종사한 시간으로 실제 일을 한 시간 외에도 일과 관련된 이동시간,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까지를 합산하였다. 여기에서는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도 일과 관련된 업무가 없는 행위들(동료들끼리 담소, 점심 식사 등)은 제외된다. 그런가하면, 정규근무시간 외에 시간외 업무를 한 경우에는 유급노동 시간에 포함된다.

가족관련활동시간: 가족관련활동 시간의 경우에는 실증연구마다 이러한 활동에 포함시키는 활동내용이 약간씩 다른데, 본 연구에서는 김정석(2005), 손문금(2005)의 연구를 참고로 일반적인 가사노동(음식준비, 청소, 세탁, 집 관리, 가정경영)을 비롯하여 돌봄 행위(아이 돌보기 및 그 외 가족보살핌 행위), 쇼핑을 포함하는 재화 및 용역 구입행위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를 가족관련활동시간으로 포함시켰다.

여가시간: 여가시간에는 교제 및 종교 활동, 대중매체 이용, 외국어나 자격증 등을 위한 학습시간, 문화 및 스포츠 관련시간, 취미활동 및 그 밖의 여가시간으로 나타나는 부분들(eg. 가만히 있기)을 포함시켰다. 일 관련활동, 가족관련활동, 여가활동의 각각의 시간은 분 단위로 표기하였다.

2) 관련변수

앞서 살펴본 유형화의 관련변수고찰에서 나타난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유형결정요인 분석에 포함되었다. 가족관련특성으로는 노부모 생존여부, 미취학자녀의 존재여부가, 그리고 직업관련특성으로는 직종과 종사상 지위, 휴일빈도 그리고 맞벌이 여부가 주요 독립변수로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성역할 태도, 동시행동량도 주요 독립변수의 하나인데, 그 측정 방법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유형별 시간에 대한 정서를 살펴보기 위해 시간부족과 피로도도 살펴보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부족 및 피로도: 시간부족과 피로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자료>에서는 시간부족(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피로도(평소 업무가 끝난 후에 피곤함을 느끼십니까?)라는 4점짜리 단일문항으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부족을 더 많이 느끼고, 피곤함도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범위는, 설문과 동일하게 1-4점의 응답범위를 갖도록 구성하였다.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맞벌이 여부와 성역할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성역할 가치관은 조사된 문항 가운데,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라고 해석하였다(응답범위: 1-4).

동시행동: 동시행동은 주행동과 동일한 구조로 각 행동에 소요된 시간이 조사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주로 주목하는 동시행동은 유급, 무급 그리고 노동시간이기 때문에, 동시행동 가운데, 개인유지, 이동시간과 같은 부분은 제외하고 나타나는 주행동과 병행해서 나타난 일관련동시행동, 가족관련 동시행동, 그리고 여가관련동시행동 시간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였다. 동시행동수준이 높을수록, 주행동과 병행하여 수행한 활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1>참조). 분석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59.9%, 여성이 40.1%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연령대를 보게 되면, 40대가 전체의 52.3% 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50대로 29% 그리고 30대가 18.7%로 나타났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30대는 35세 이상의 연령자만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3.6%에 불과하였다. 7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을 둔 경우는 전체의 12.6%였으며, 부양할 노부모(양가 합쳐서)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52.6%로 나타난다. 현재 취업하거나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맞벌이 가족은 전체의 73.8%였으며, 홀벌이인 경우는 26.2%로 나타났다.

<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n=17,684)	
성	남성	10600	(59.9)
	여성	7084	(40.1)
연령	30대	3310	(18.7)
	40대	9240	(52.3)
	50대	5143	(29.0)
교육수준	고졸이하	13082	(74.0)
	전문대 및 대학	3966	(22.4)
	대학원 이상	636	(3.6)
미취학자녀	있음	2224	(12.6)
	없음	15460	(87.4)
부양할 노부모	부양부모 있음	9308	(52.6)
	부양부모 없음	8376	(47.4)
맞벌이	맞벌이	11200	(73.8)
	홀벌이	3982	(26.2)
월평균소득 (10점 척도)		4.04	(2.2)
역할태도		2.52	(.66)
동시행동 (분)		68.02	(82.73)
시간부족		3.12	(.77)
피로감		3.29	(.67)

주) 제시된 수치는 범주형 변수의 경우 빈도(백분율)이고 연속변수의 경우는 평균(표준편차)을 나타낸다.

각 변수마다 결측치로 인해 사례 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힙니다.

*:p<.01, **:p<.001

역할태도는 전체 4점 척도에서 응답자 평균은 2.52점으로 분석대상자들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동시행동시간은 전체응답자 평균이 68분 정도로 하루일상중에서 약 1시간가량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동시행동시간의 분산(variation)은 상당히 큰 편이다.

시간부족과 피로감은 전체응답자 평균이 각각 3.12와 3.29로 4점 척도의 중앙값을 약간 넘겼다. 응답자들이 대체로 시간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지각하는 피로도도 높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2. 유급노동시간, 가족관련시간, 여가 시간 수준과 유형화 작업

분석대상자 17,684명이 응답한 유급노동시간, 가족관련활동시간, 여가시간의 점수분포를 <표2>에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은 하루평균 유급노동에 투여하는 평균시간이 하루 평균 343.55분, 약 5.7시간이었으며, 중앙값으로 보게 되면, 6시간 30분 정도로 나타났다. 유급노동에는 종일 근무에서부터 시간제 근무, 격일 근무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이다. 또한 근무시간에 일이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활동시간들은 모두 제외되어 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근무시간의 개념보다는 실제 일과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짧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련활동시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가사활동에서부터 돌봄, 구매활동까지 가족과 함께하거나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하루에 50분 정도 가족관련활동에 시간을 투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평균 점수로 보았을 때는 98.67분, 약 1시간 40분의 수준이다. 이러한 중앙값과 평균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볼 때, 응답자들의 가족 관련활동시간에서의 편차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여가활동시간은 평균 262.4분, 약 4시간정도로 나타난다. 지난 「1999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분석한 유소이·최윤지(2002)의 자료에서 여가시간이 남녀 각각 266.33분, 285.19분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여가시간이 가족관련활동시간보다 더 길게 나타나는 점은 흥미롭다.

<표2> 유급노동시간, 가족관련 활동시간 및 여가활동시간의 전반적인 경향 (단위: 분)

변수	전체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분포 (중앙값)
유급노동시간	17,864	343.55	167.29	390.00
가족관련활동시간	17,864	98.67	123.34	50.00
여가활동시간	17,864	262.41	220.06	230.00

3. 중년기 일상경험 유형화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시간활용의 유형화 작업을 위하여 유급노동시간 및 가족관련활동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의 세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를 할 수 있었으며(표3 참조),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유형1은 <표2>에서 제시된 평균점수와 비교해 보면, 유급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약간 긴 대신에 가족관련활동 시간은 평균치에 근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을 표준화 된 점수로 나타내면, “+ 0 +”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유형들과 비교해 보면 가족관련활동을 비롯하여 유급노동시간과 여가시간도 평균치에 가장 근접한 나타나는 유형이다. 전체 분석대상자 17,864명 가운데 33%가 해당되는 이 유형을 “일가족양립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2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유급노동시간이 매우 긴 반면에 가족관련활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전체 평균보다 매우 짧게 나타나는 “++ -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형 2는 하루 평균 9시간을 약간 넘기는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내는 반면에, 가족관련활동시간

은 1시간 남짓으로 그 비중이 매우 작았다. 여가시간으로 집계되는 시간도 평균 2시간을 약간 넘기는 정도였는데, 그 여가의 대부분 시간은 TV나 인터넷 등 매체이용시간으로 채우고 있다. 여가형태가 매우 단순하고, 가족관련활동시간도 매우 제한적인 이 유형을 “일중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2가 전체 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2%로 네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이 유형2에 해당하였다.

<표3> 일상유형별 빈도 및 표준화점수

(단위: 분)

유형	빈도수	유급노동시간	가족관련시간	여가시간	집수부호
1	5,838	370.48	62.66	265.74	+ - +
2	6,216	562.11	55.78	129.39	+ - -
3	2,579	101.05	314.97	249.67	- + -
4	3,051	51.72	72.14	537.86	- - +

<표4> 일상 유형별 세 차원점수의 일원분산분석

(단위: 분)

차원	유형	평균	F	Scheffe
유급노동	1	370.48	29237.43 ***	a b c d
	2	562.11		
	3	101.05		
	4	51.72		
가족관련활동	1	62.66	6569.59 ***	a b c d
	2	55.78		
	3	314.97		
	4	72.14		
여가시간	1	265.74	13175.13 ***	a b c d
	2	129.39		
	3	249.67		
	4	537.86		

** : p<.001

유형3에서는 유급노동이나 여가시간보다도 가족관련활동시간이 유독 길게 나타나는 특징이 발견된다(“- + -”). 특히 유형 3에서 드러나는 가족관련활동시간은 하루평균 5시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는 표2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평균보다도 거의 3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이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가족관련활동은 가사노동과 돌봄행동으로, 이들은 각각의 활동에 하루 평균 약 4시간, 그리고 1시간가량을 투여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유급노동시간은 123분, 약 2시간정도 할애하였다. 여가시간은 약 4시간으로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데, 이렇게 다소 긴 여가의 대부분을 대중매체를 이용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유형 3과 같은 형태를 “가족중심형”으로 보고자하며, 전체 취업 부부의 14.6%가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형 4는 네 유형 가운데 여가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이를 표준화 점수의 부호로 표시하면 “- - +” 게 나타낼 수 있다.

여가시간이 유독 길게 나타나는 유형4의 경우는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제 노동시간에 투자하는 시간은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은 반면에, 여가시간은 9시간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중매체 이용이 전체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사례들과 상이하였다. 유형 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즐기는 활동을 살펴보면, 교제활동에 하루 평균 91분, 대중매체이용에 237분, 종교활동을 하는데 30분정도 소요하고 있었다. 문화 및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71분으로 다른 세 유형에 비해 이 문화와 취미활동 할애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체력단련(등산, 걷기, 산책, 레저활동) 및 유흥(술과 담배피우기), 이며 “아무것도 안하고 쉬”으로 30분 이상을 소요한 응답자 수만 해도 유형4의 15%가 넘었다. 후기산업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여가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유형에서 관찰되는 여가활동은 “남는 시간을 소비하는” 활동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유형 4에 해당하는 개인은 17.36%로 “여가중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4. 유형결정요인 및 특성

유형화를 한 이후 다음단계로 중요한 것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을 밝히는 작업이다. 선별한 유형들이 각각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분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기준집단인 “일가족양립형”(유형1)에 비해서 나머지 세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들, 역할태도, 동시행동빈도를 독립으로 하는 다항로지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5>에 나타나 있다.

우선 <표5>의 첫 번째 칼럼은 준거집단인 “일가족양립형”에 비해 “일중심형”으로 분류될 확률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일가족양립형과 일중심형은 교육수준, 미취학자녀의 유무, 직종, 직업지위, 맞벌이여부와 동시행동 빈도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이 낮고, 생산노무 및 기술직인 경우, 자영업자나 사업주보다는 임금 및 봉급근로자인 경우에 하루일상이 일 중심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도로 전문화된 직종에서 이른바 일중독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조금은 다른 결과이다. 가족구조로 보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 맞벌이보다는 홀벌이 가족에서 유급노동을 하는 가족원이 “일중심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런가 하면, 일중심형의 경우 동시행동을 하게 되는 비율은 “일가족양립형” 비해 훨씬 낮았다. 동시행동시간의 대부분이 가족과 여가와 관련된 시간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중심형은 그야말로 하루일상이 유급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두 유형의 차이로 성이나 연령은 유의미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

일중심형과 가족중심형을 비교한 결과는 두 번째 칼럼에서 제시하였다. 가족중심형을 구분하는 특징으로는 성별, 평균소득, 교육수준, 어린자녀유무, 노부모생존여부, 휴일빈도, 직종, 직업지위, 그리고 동시행동빈도로 나타난다. 앞서 일중심형과 일가족양립형의 비교분석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성(gender)이 가족중심형과의 비교에서는 유형을 가르는 차이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게 되면, 일가족양립형과 비교해 볼 때, 가족중심형에는 주로 취업한 여성이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5> 일상유형결정요인에 관한 다항로지분석 결과(n=17,734)

	일중심형		가족중심형		여가중심형	
	b	s.e.	b	s.e.	b	s.e.
성별(ref: 여성)						
남성	-.103	.062	-2.315 ***	.102	.493 ***	.082
연령	.000	.005	-.013	.009	.019 **	.006
평균소득	.007	.012	-.170 ***	.023	-.041 **	.014
교육수준(ref: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113 *	.048	.187 *	.081	-.006	.054
어린자녀 여부(ref: 미취학자녀 없음)						
미취학자녀 있음	.191 **	.065	.376 ***	.106	-.041	.081
노부모 생존여부(ref: 노부모없음)						
노부모 있음	.070	.059	.336 ***	.094	.082	.070
휴일빈도	-.006	-.006	.159 ***	.020	.106 ***	.015
직업종류(ref: 기술생산노무직)						
전문·사무·관리직	-.760 ***	-.760	.004	.103	.041	.072
서비스·영업직	-.266 ***	-.266	-.228 ***	.084	-.291 ***	.074
중사상 지위(ref: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임금, 봉급근로자	.342 ***	.054	.051	.083	.046	.064
고용원 있는 사업주	.008	.075	-.445 ***	.155	-.221 *	.091
맞벌이 여부(ref: 맞벌이)						
비맞벌이	-.162 ***	.051	-.152	.126	.023	.162
성역할 태도	.02	.032	-.034	.052	.008	.042
동시행동빈도	-.011 ***	.004	.007 *	.003	.001	.186
LR. χ^2	2825.20					
d.f.	42					
n	13,692					

*:p<.05, **:p<.01 ***:p<.001

주) 종속변수의 준거집단은 “평균형”이다.

이들의 계층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소득은 평균형에 비해 낮고, 직종으로 보면 단순기술직이나 전문관리 및 사무직으로 직종이 이분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직업지위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일 가능성은 평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가족중심형으로 분류되는 개인은 자영업자이거나 혹은 임금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족구성을 보게 되면, 가족중심형은 미취학의 어린자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일가족양립형에 비해 높았고, 또한 노부모가 한분이라도 생존해 있을 확률도 높아서, 이들은 샌드위치세대로 나타나는 중년의 전형적인 가족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시간배분에서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시간이 길게 나타난 결과는 이들 가족중심형에서 드러나는 가족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동시행동 빈도인데, 가족중심형은 일가족양립형에 비해서도 동시행동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가형으로 분류될 확률은 세 번째 칼럼에 나타나 있다. 일가족양립형과 비교하면 여가형은 성과 연령 그리고 소득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이면서,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중년 후반에 있는 경우, 그리고 평균소득은 더 낮을수록 일가족양립형보다는 여가형으로 구분될 확률이 높았다. 이밖에도 휴일빈도, 직종과 직업지위에서 일가족양립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형은 유급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적은만큼, 휴일빈도도 일가족양립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종이나 종사상 지위로 보게 되면, 일가족양립형에 비해 자영업자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6> 일상유형별 삶의 질의 차이

구 분	일가족양립형	일중심형	가족중심형	여가중심형	F	Scheffe
시간에 대한 정서	3.07	3.29	3.08	2.91	184.22 ***	ab a ab b
피로도	3.23	3.46	3.18	3.15	218.97 ***	a b c c

***: p<.001

5. 유형별 삶의 질의 차이

마지막으로 유형별 시간에 대한 정서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6>에서 제시하였다.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게 되면 네 유형 모두 시간부족을 2점 이상 3점 대로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가형의 경우에 시간부족에 대해 평균점수가 2점 후반 대 다른 유형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평균점수로 보면 그 차이가 .38로, 시간부족을 가장 높게 지각한 일중심형과의 차이가 많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시간부족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각 유형별로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일중심형은 나머지 네 유형보다 시간부족을 더 높게 지각하고(F=184.22, 평균 3.29) 다른 유형보다도 유의미하게 피로감을 많이 지각하는 것(F=218.97)으로 나타났다. 일중심형에서 나타나는 값은 전체 4점 척도에서 시간부족과 피로감이 각각 3.29와 3.46으로 이는 측정된 척도값으로만 보더라도 시간부족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중심형 다음으로 시간부족을 지각하는 유형은 일가족양립형과 가족중심형이었다. 가족중심형은 일가족중심형에 비해 여가시간은 길고 유급노동시간은 짧은 대신 가족관련활동시간이 긴 특징이 있었다. 가족중심형이 긴 여가시간에도 불구하고 가사 및 돌봄시간의 비중이 높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비율이 높아 시간부족을 지각하는 수준도 일가족양립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피로감의 지각에서 관찰되는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 일중심형의 피로감 평균이 3.46으로 네 유형 가운데 가장 피로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일가족양립형으로 3.23수준이었다. 가족중심형과 여가형이 각각 3.18, 3.17로 둘 간의 피로감의 인지수준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패턴은 하루일과에서 유급노동시간의 비율과 그 순서와 거의 일치한다.

V. 결론

가족과 직업역할에서 관찰되는 차이들은 중년기의 삶이 얼마나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일상생활의 관점에서 중년기 삶에서의 다양성과 충화된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바탕으로 35-59세 취업자의 생활시간배분 양상을 분석하여 중년기의 일상생활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 결과 35-59세 취업자들의 시간배분양상은 일가족양립형, 일중심형, 가족중심형 그리고 여가중심형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 연구 결과 나타나는 네 가지 시간배분 유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일가족양립형은 유급노동시간이 길면서도, 여가와 가족관련활동시간도 확보하여 어느 정도 시간배분의 균형을 갖춘 유형이었다. 말하자면, 일과 가족역할을 모두 잘 해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응답자의 가장 많은 수(전체의 35%)가 해당하는 일중심형은 유급노동시간이 가족관련활동시간이나 여가시간에 비해 절대적으로 길었다. 일가족양립형과 비교해 보면, 유급노동시간은 평균 190분 더 길다. 이러한 일중심형은 교육수준은 더 낮고, 직종으로 보게 되면 단순노무, 생산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 일가족양립형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가족중심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가족관련활동시간 즉, 가사노동과 돌봄행동 그리고 가사관리활동에 소요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여성이면서 직종으로 보게 되면, 단순기술생산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족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일가족양립형에 비해 자녀와 노부모 부양에서 부양부담이 높을 가능성이 높았다. 더불어서 가족중심형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시간도 일가족양립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었다. 여가형의 경우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여가활동시간이 길게 나타난 유형이다. 이들이 주로 수행하는 여가활동은 대중매체를 보는 시간이 가장 길었고 운동, 등산과 교제활동이며, 음주와 흡연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소요하는 시간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여가형에는 상대적으로 중년 후기의 남성을 위주로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직종으로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격일근무자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이 여가형은 전체의 17.3%였다.

둘째, 일가족양립형은 다른 네 유형에 비해 유급노동시간과 가족관련활동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의 균형을 이룬 유형이다. 이러한 유급노동시간이나 여가시간에 비하면 가족관련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30분 정도로 많지 않다. 때문에 자칫하면 이 유형은 가족보다는 일과 여가중심으로 일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런데,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시간량 데이터에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한 활동인지를 묻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여가시간이 가족과 함께 한 것인지, 개인적인 시간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일가족양립형이 유형이 일중심형에 비해 동시행동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은 간접적으로나마 이들의 여가시간이 온전하게 개인적인 시간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모자녀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활동시간과 여가시간의 상호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승미·이기영(1998)의 연구에서도 식사시간, 대중매체 이용시간, 여가시간을 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숙재·윤소영·윤지영(2005)은 더 나아가서 가족여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미혼자녀와 거

주하는 가족에서 부모들의 여가시간의 많은 부분은 가족과 함께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주어진 공유시간에 얼마나 질적으로 높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식사시간, TV시청,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관람 및 기타 여가시간에 가족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실제로 Binachi(2006)에 의하면, 미국 부모들이 개인적인 여가시간, 가령 영화, 공연관람, 스포츠 경기 참여, 박물관 및 전시관람과 같은 시간에 자녀를 대동하는 비율이 지난 20여년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중년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일가족양립형에서 여가시간이 가사나 돌봄행동같은 가족관련행동시간보다도 길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가족여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일가족양립형과 조금은 대조적인 유형이 바로 일중심형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활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일중심형은 유급노동시간이 긴 특징이 있다. 때문에 일명 “일하는 중년” 그리고 노동중독이라고 할 만큼 일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흔히 묘사되는 직장인의 모습에 근접하다. 김왕배(2007)에 따르면, 노동중독도 그 정도나 직종, 근무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에 매몰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의 하나가 고용불안정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유급노동시간이 다른 유형보다도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는 일중심형은 단순생산기술직, 서비스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주나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자라는 점은 김왕배(2007)의 논의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중년 후기 취업남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유형4의 경우 여가시간이 다른 유형보다 유의미하게 길게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나이는 유급노동을 하는 남성에게서 이러한 유형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일가족균형형에 비해 소득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직종으로 보면, 주로 격일제·시간제 근무를 하는 단순노무일, 기술직, 소규모 자영업자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의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 50대 이상의 남성인구 경제활동수준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임을 시사한다. 이들이 여가문화를 선도하면서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을 누릴 여력은 없어 보인다. 때문에, 여가형에서는 취미활동보다는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이들의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Hochschild는 『*Time Bind*』(2001)에서, 미국의 취업자 가족에서 발견되는 가족지향적인 유형에 대해 언급하였다. 가족중심형은 시간배분에서도 가족우선성을 강조하였고 성역할 태도에서도 여성의 가족역할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고 예측되어 왔다. 그리고 이에 대해 Hochschild는 아마도 저소득층 여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유형간 차이를 비교하는 다항로지분석에서 성역할 태도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에 비해 성별과 맞벌이여부와 같은 역할태도에 대한 설명을 대체할만한 변수의 영향력은 확인되었다. 예측대로 중년여성은 일가족양립형보다는 가족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취업여성들이 취업남성에 비해 일상을 가족지향적으로 구성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로설드의 논의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가족중심형에는 시간제 일에 취업하고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들은 상용직보다는 자영업이나 기타 임시직에 속할 가능성이 많았다. 상용직처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 가족원이나 자녀를 돌보는데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로 보인다. 다만, 이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는 이들이 가사나 돌봄을 위해 이러한 직업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직종이 임시 및 시간제 직업으로 직장선택이 제한되면서 가족관련활동시간이 증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일을 선택하게 되는 여성들의 구체적인 노동유형 및 조건과 차별성, 그리고 선택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시간일지에서 주행동으로 드러나는 부분 이외에 동시수행활동의 내용과 그 시간을 파악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가족중심형이 일가족양립형보다 동시행동시간이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양립형이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동시행동시간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가족중심형의 동시행동시간양은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가족중심형의 경우 유급노동에 투여하는 시간보다 가족활동시간과 여가시간이 긴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사일, 돌봄, 노동시간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가족중심형은 다른 유형들과 비교해 볼 때도 유급노동시간이 긴 유형과 근사한 수준의 시간부족의 정서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 및 돌봄시간에서 갖는 부담과 함께 동시행동시간으로 갖는 시간적인 부담이 예상외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네 유형은 유급노동과 여가시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시간부족에 대한 지각에서는 유형별 평균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일중심형처럼 유급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나 여가시간이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 모두 시간부족을 지각하는 수준이 유사하다는 결과는 흥미롭다. 또한 가족중심형처럼 여가가 많더라도 동시행동을 수행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시간부족에 시달린다는 점은 시간의 효율성을 찾는 현대사회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시간의 증가와 무관하게 현대인들이 지각하는 시간에 대한 인식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시간부족은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서라는 기존의 논의와 유사한 방향이다. 한편, 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시간부족의 정서는 피로감의 지각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부족을 많이 지각하는 일중심형은 피로감도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였다. 그에 비해 시간부족에 대한 지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여가중심형은 피로감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였다. 이 연구가 사용한 생활시간조사자료에는 삶의 질에 대한 더 구체적인 문항이 없어 피로감이나 시간부족인식이 개개인의 삶의 질 혹은 건강문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는 없었다. 다만, 기존 서구 결과들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일중심형처럼 시간부족과 피로감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는 삶의 질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 직업과 가족역할이 역할조합이 동일한 대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성하는 일상경험은 상이한 구조 속에 층화되어 있는 점을 시간활용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차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중년기를 살아가면서 변화해가는 삶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 이렇게 상이한 중년의 삶을 겪고 있는 이들이 앞으로 노년기로 진입할 때, 직업과 가족 그리고 여가시간에서의 재편방식은 다를 것이며, 이러한 시간재편이 초래할 효과도 매우 차별적일 것이다. 가령, 하루일과의 대부분이 여가시간으로 채워지고 있는 “여가중심형”과 유급노동이야말로 일상의 전부인 “일중심형”의 노년기로의 진입이 다른 경로를 가질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때문에 중년의 일상의 층화된 경험들이 노년기로의 진입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주시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2004생활시간조사>자료는 시간과 관련된 정보는 풍부하지만, 이를 분석할만한 재료가 되는 변수들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대부분 직업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 수 있는 변수들은 제시된 반면에, 가족형태나, 총 자녀수 등 구체적인 가족형태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였다. 또한 역할태도나 피로도, 시간에 대한 정서를 제외하면, 사회심리적인 변수에 대한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서 유형별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설명변수로 포함시킬 수 있는 변수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중년층의 시간패턴에 대한 더 면밀한 정보를 주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언급해온 중년의 삶의 다양성을 생활시간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가 전국규모로 조사된 대표성 있는 자료이었다는 점에서 중년기 일상경험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의미도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ecker, G.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LXXV (September):493-517.
- Bianchi, S. J. Robinson, P. and Milkie, M (2006).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inachi, S. M. Casper, L. M. & King, R.B.(2005). Complex connections: A multidisciplinary look at work, family, health and wellbeing research. In Binachi, S. M. Casper, L. M. & King, R.B(eds.) *Work, Family, Health, and Well-being*(Pp.1-17).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Bittman, M. & Wajcman, J. (2000). The rush hour: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s*, 79, 165-189.
- Hessing, M. (1994). More than clockwork: Women's time management in their combined workloads. *Sociological Perspectives*, 37, 611-633
- Hochschild, A.(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Avon Books.
- Hochschild.(1996). *Time bind*, New York: Henry Holt.
- Mattingly, M.J., and Sayer, L.C.(2006). Under pressure: Gender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 time and feeling rushe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205-221.
- Milkie, M.,Mattingly, M.J., Nomaguchi, K.M., Bianchi, S.M., and Robinson, J.P.(2004). Time squeeze: Parental status and feelings about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739-761.
- Rogers, S.J. & Amato, P.R. (2000). Have changes in gender relations affected marital quality? *Social Forces*, 79, 731-753.
- Sahlins, M. (1972). *Stone Age Economic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cheiman, S. (1999). Age and ang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273-289.
- Schneider, B. & Waite, L. (2005). Timely and timelessness: Worki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Binachi, S. M. Casper, L. M. & King, R.B(eds.) *Work, Family, Health, and*

- Well-being*(Pp.67-79).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강수택.(1998). 근대적 일상생활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회학, 32(3), 503-529.
- 김왕배(2007). 노동중독: 직무태도와 조직특성의 관점에서 본 사회심리적 접근. 한국사회학, 41(2), 90-117.
- 김정석.(2005). 한국중년남녀의 무급노동내용과 시간량. 한국인구학, 28(1), 173-201.
- 김진욱(2006).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나타난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여름), 149-177.
-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서울: 신정.
- 문숙재,윤소영,윤지영.(2005). 가족여가의 의미와 동기에 따른 여가만족도 분석: 가정지향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31-39.
- 박수미,선보영,김진욱(2005).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도, 은기수, 오만석, 김복수, 박수미, 이윤석, 김정석(2005).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일상생활의 쟁점.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 손문금(2005). 여성의 이중부담과 유급노동시간의 주변화, 한국인구학 28(1), 277-311.
- 신기영,옥선화(2000). 중년기 취업 여성의 가족 역할과 직업 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8(8), 29-41.
- 오만석, 은기수, 김복수, 이윤석, 김정석(2005)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생애주기별 접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 유소이,최윤지.(2002).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3), 53-68.
- 이기영,송혜림,이승미,문지선,송지원(1996). 도시 남성근로자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97-111.
- 이기영,이승미(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3), 11-26.
- 이기영,조희금,김외숙,이승미,홍두승,조홍식,김유경,김주희(2006). 농가 가족원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205-222.
- 이승미,이기영(1998).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23-136.
- 이형실(2000).기혼 여성과 남성의 직업 스트레스, 배우자 지원 및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 47-55.
- 채로, 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 통계청.(2004). 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통계청.
- 한경혜(2001) 성공적 중년기 발달요인 탐색: 정신건강 일가족 라이프코스의 한미간 비교연구. 미간행 보고서
- 한경혜,노영주(2000). 중년기 여성의 40대 전환기 변화 경험과 대응에 관한 질적연구, 가족과 문화 12(1), 67-91.
- 한경혜,이정화,Ryff,Marks,옥선화,차승은(2003). 한국 중년기 남녀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행동: 성별,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1), 213-230.
- 한경혜,이정화,Ryff,Marks,옥선화.(2002). 중년기 사회적 역할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2(2), 209-225.
- 한신갑,박근영(2007). 구별짓기의 한국적 문법: 여가활동을 통해 본 2005년 한국사회의 문화지형. 한국사회학, 41(2), 211-239.